

| 권두언 |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시대

한국 사회적 대화의 역사, 노사관계의 역사에 새 시대가 열렸다. 지난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이끌어 갈 18인의 위원들 가운데 17인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로써 1998년 1월에 만들어져 근 20년을 이어왔던, 말 많고 탈 많던 '노사정위원회'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2018년 1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300일을 훑날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주지하듯이 그 300일은 바로 6인으로 구성된 '노사정대표자 회의'가 작동하며 사회적 대화의 복원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건립을 위해 과도기적인 몸부림이 진지하게 전개된 시간이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경사노위다.

12월 말 현재 경사노위에는 5개의 의제별 위원회, 1개의 특별위원회, 그리고 2개의 업종별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이미 그 안에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의 맹아적 질서가 제도적, 문화적으로 형성되어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를 향한 뜻을 달고 이렇게 8척의 배들이 띄워져 운항하고 있는 상태인 거다.

허나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왔다고 봄이 오랴. 말 그대로 '춘래불사춘'이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발족했지만,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는 아직 구현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박명준

본지 편집위원장



8개의 배들 그 가운데 향해의 진도를 충분히 빼거나 뚜렷한 성과를 거둔 배는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월 노사정대표자 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이 이번에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에서 추인되어 현재까지 유일한 공식합의문으로 존재한다. 여기에 노사관계제도관행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ILO기본협약의 비준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혁 방안을 담은 ‘공익위원 합의문’을 지난 11월 20일 발표한 것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 그 사회적 파장은 나름 컸지만 여하튼 노사정 당사자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문가들만의 합의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지난 1월 31일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사회적 대화에는 순풍보다 역풍이 섰던 날들이 여전히 많았다.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의 시간이 찾아오면 대화는 빙하기를 맞이하곤 했다. 사회적 대화는 마치 간빙기에 잠시 열리는 이벤트인가 싶을 정도였다.

노동존중사회의 주역이 되어야 할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나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해서나 여전히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며 힘 있게 대화체제의 중심에서 서 있지 못하다.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겠지만, 노동계 스스로도 전략적 유연성과 현실주의적 개혁노선을 얼마나 체화하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효과부진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12월 중순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

을 표방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로부터 사뭇 이탈한 모습이다. 노동계에게는 파트너십보다는 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투자주도성장의 기조가 득세한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정책으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노동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범주는 아니지만, 경제정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이 기존에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 우선순위의 변동은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조가 문제인 것은 그 안에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굳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과, 노동의 사회적 시민권의 상향균형화 도모라고 하는 절실한 과제가 소홀해질 수 있는 점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공간은 어쩌면 그만큼 협소해질 수 있다. 현 정부의 개혁의 기조에 동의를 하면서 그것을 보다 온전히 실현해 보려는 기대 속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명분을 얻었던 노동계로서는 달라진 정책기조 하에서 협소해진 사회적 대화의 공간에 들어와 제 역할을 하기가 더욱 더 쉽지 않을 수 있다.

사실 경사노위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이해조정 필요성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연말에 발발한 세 가지 사건을 주목할 수 있다. 하나는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노사상생형 내지 사회통합형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격을 보지 못하고 미끄러진 사건이다. 두 번째는 카카오사의 카풀 사업 개시를 반대하며 택시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감행하여 끝내 사망한 사건이다. 세 번째는 태안의 발전소에서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설물을 청소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휘감겨 사망한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우리사회가 격차해소를 향한 사회적 연대와 노사상생의 정신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구현을 제대로 감당하기에 여전히 미흡하고, 포용적 디지털 전환의 과제를 실현하기에 사회구성원 간 소통이 턱없이 부족하며, 사회적 약자가 노동현장에서 배려되는 노동존중사회로 이행해 가는 과제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먼 상태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세 가지 모두 우리 사회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현실화시켜 줄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다. 의미심장한 것은 이들 모두는 경사노위와 그 역할과 관련성이 없지 않지만, 실제로 경사노위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감당할 조건과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셋 모두 경사노위의 공식적인 아젠다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전 사회적으로 점점 커져 가는데, 사회적 대화는 그 공식적인 제도적 쇄신과 다르게, 실제로 그것의 활동 공간은 충분히 확장되기 쉽지 않은 정세가 도래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 속에 막 출범을 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경사노위는 제대로 순항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의 안착과 그를 통해 우리 사회를 노동존중사회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업은 과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번호 〈격월간 사회적 대화〉는 희망과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출범한 경사노위를 중심에 두고 구성을 했다. 먼저 본위원회의 역사적 출범을 스케치하면서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각오를 들어 보았다. 이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인큐베이팅되어 경사노위로 이관된 회의체들을 포함하여 앞서 이미 발족하였거나 곧 발족을 앞두고 준비 중인 회의체들을 소개하였다.

새로운 시도인 업종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소개의 글도 담았고, 계층별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추진 전망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경사노위의 면모를 집약하여 8문 8답으로 정리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연말, 연초 사회적 대화의 3대 그랜드 아젠다 (grand agenda)인 ILO협약 비준, 탄력근로시간제 개혁, 그리고 연금개혁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의 전망을 보다 자세하게 짚기 위해 각 회의체의 활동들을 다양하게 조망하며 다루었다.

기획대담에서는 격차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놓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과 취약층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중요함을 역설하는 전문가 6인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기획좌담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이번호는 경영계 편을 다루었는데,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관계자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그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지역 사회적 대화의 현장을 담은 코너에서는 공공부문과 사무금융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전개하는 연대기금 사업의 전개 양상을 다루었다.

2018년 가을 경사노위는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는 지난 10월 중순에 경사노위와 서울시가 공동개최한 '지역노동정책의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이다. 두 번째는 한겨레 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경사노위가 주도하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노사정의 역할과 사회적 대화'라는 제하에 10월 말에 개최한 토론회였다. 마지막은 지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해 발족한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11월 말에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가?'라는 제하에 개최한 토론회였다. 이번 호에서는 세 토론회 각각의 내용을 지면에 담아 소개하였다.

전문위원 정책스케치로 김미영 위원이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에서 ILO기본협약의 활용방식을 분석한 글을 게재하였고, 끝으로 사회적 대화의 국제 동향으로 유럽 주요국의 올 2/4분기 노사관계 동향과 사회적 협약의 미래 전망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바카로&갈린도)의 글을 번역, 게재하였다.

2018년 한 해 동안 <격월간 사회적 대화>는 2월에 발간된 1/2월호를 필두로 하여 이번호까지 여섯 권을 발간하였다. 훗날 2018년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원년으로 기억된다면, 그 소중한 기록들은 일차적으로 <격월간 사회적 대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이 확인될 것이다. 내년부터 <격월간 사회적 대화>도 2년차에 돌입한다. 한층 성숙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전개되어질 우리 사회 사회적 대화의 이모저모를 이 매체에 충실히 담아내기 위해 내년에도 편집진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1년간 이 매체의 발간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해 준 모든 이들, 그리고 여러 부족함에도 흥미를 갖고 일독을 해 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8년 12월
북약산 자락에서